독후활동지

달콤짭짤 바삭촉촉

★★☆ | 초등학교 3~4학년

달콤짭짤 바삭촉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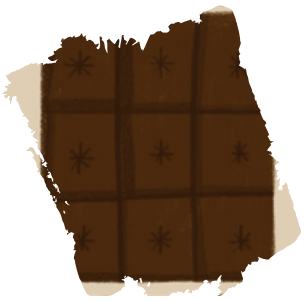
책의 내용을 차곡차곡 떠올려 봅시다.

월 일

이름

1 떠오르는 음식은?

'달콤짭짤 바삭촉촉'이라는 제목을 보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바로 음식이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가 즐겨 먹는 것 중에서
달콤한 음식, 짭짤한 음식, 바삭한 음식, 촉촉한 음식을 써 보세요.



2 나만의 음식은?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은 약이 되어야 하고 약은 음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름에는 삼계탕을 먹어서 더위를 날리고, 슬플 때는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조금 나아져요.
여러분도 더울 때, 추울 때, 슬플 때, 아플 때 먹는 음식이 있나요? 그려 보세요.

달콤짭짤 바삭촉촉

책의 내용에 상상력을 더해 봅시다.

월 일

이름

3 우리 동네 대표 음식!

지역마다 유명한 식품이 있어요. 제주도는 귤, 울릉도 하면 오징어, 하동은 녹차,
해남은 고구마가 떠올라요. 지역 대표 식품으로 만든 음식도 다양하게 발달하지요.
내가 사는 동네에는 무슨 식품이 유명한가요? 그 식품으로 요리한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4 꼼꼼히 따지고 먹는 습관 기르기

마트에 가면 가공식품, (반)조리 식품 등 편리하게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많이 팔아요.
집에 있는 식품 중 가공식품을 찾아서 포장지의 영양 성분표를 그려 보세요.
어떤 재료로 만들고 무슨 영양소가 들어 있는지 써 보세요.